

구로 디벨롭

한강의 기적 _ 1960, 70년대 우리나라 공단 1번지이자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구로공단. 속칭 '공순이'라 불리던 우리 누이들이 남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 재봉틀과 씨름하며 수출한국의 기적을 일으켰던 곳이다. 구로공단의 성공은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끈 원동력이었다.

구로아리랑 _ 구로공단은 1980년대와 90년대를 지나면서 국가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시련의 나날을 보내게 된다. 노동운동의 확산과 섬유산업의 사양화가 진행되면서 기업들은 점차 구로공단을 빠져나가기 시작하였다. 작가 이문열의 '구로아리랑'에 비친 우울한 인간군상들, 바로 이 시대의 구로공단을 상징하는 단상이었다.

변화와 성장 _ 1990년대 후반, 쇠락해가는 구로공단을 살리는 노력이 각계에서 진행되었다. 당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구로단지 첨단화계획'을 세우고 구로공단을 새로운 첨단벤처 중심의 산업단지로 변모시킬 작업에 착수했다. 섬유, 봉제 등 사양산업이 중국 등지로 이전하는 상황이 심화되면서 구로공단은 첨단화계획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구조고도화가 진행되던 지난 2000년, 구로공단은 21세기를 '서울디지털산업단지'라는 새 이름을 갖고 다시 출발하게 된다.

'공순이'와 벤처인들 _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이름을 바꾼 지 불과 4년 만에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했다. 고층의 첨단 아파트형 공장 숲이 형성된 것이다. 단지의 주력산업이 첨단정보, 지식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섬유, 봉제업체들의 단층 공장 터에 잘 단장된 아파트형 공장이 하나둘씩 들어섰다. 그리고 과거 여성 근로자들의 자리는 IT, 전자, 지식산업에 종사하는 벤처인들로 채워졌다. 허름한 나일론 작업복의 여성 근로자들 대신 이제는 넥타이와 캐주얼 차림의 젊은 디벨롭(디지털밸리족)이 거리를 활보한다.

구로 '디벨롭' _ 본사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위치해 있어 입주기업을 둘러볼 기회가 많은 편이다. 그 때마다 젊은 벤처인들의 당찬 도전정신과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열정을 몸소 느낄 수 있어 뿌듯한 감정을 지울 수가 없다. 그들이 꿈을 펼치고 있는 이 현장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의 맥이 전해내려 오는 것은 아닐까. 과거 구로공단에서 고된 노동시간 후에도 야학을 통해 '주경야독' 하던 우리네 누이들의 혼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세계를 무대로 불을 밝히는 벤처인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듯하다. 혁신경제주체로서의 바람직한 벤처생태계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